

**IFA's 9th Global Conference on Aging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Meeting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 보고서**

2008. 9.

해외출장 목적

- 세계 각국의 고령사회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우수사례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 수정, 보완시 반영코자 함.
- 각국의 고령친화용품 및 고령친화디자인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고령친화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 캐나다 가족·보육서비스 정책 등 저출산 대비책을 벤치마킹하여 정책 수립시 반영

해외출장 개요

- 출장자: 이소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균(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손주영(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 사무관), 서수운(보건복지가족부 고령사회정책과 주무관)
- 일정: 2008년 9월 3일(수) - 9월 11일(토)

<세부 일정>

년월일	행 선 지 (국가/도시)	방문기관/면담자	활 동 사 항
9월 3일 (수)	서울 캐나다밴쿠버 캐나다몬트리올	이동	○인천공항 출국 (18:20) (KE071편) ○밴쿠버 출발 (13:50) (AC112편) ○몬트리올 도착 (21:39)
9월4일 (목)	몬트리올	IFA's 9th Global Conference On Ageing, Expo Ageing & Design Montreal	○IFA's 9th Global Conference On Ageing의 The Senior Government Officials' Meeting 참석 및 발제 -발제주제 : Ageing in Place : the Korean example -발제자 : 이소정 -발제예정 : Concurrent sessions(13:30-15:30) ○Conference Official Opening 참석 (6:00pm - 8:30pm)
9월5일 (금)	몬트리올	IFA's 9th Global Conference On Ageing, Expo Ageing & Design Montreal	○Conference 참가 및 EXPO 참관
9월6일 (토)	몬트리올	IFA's 9th Global Conference On Ageing, Expo Ageing & Design Montreal	○Conference 참가 및 EXPO 참관
9월7일 (일)	몬트리올	IFA's 9th Global Conference On Ageing, Expo Ageing & Design Montreal	○Conference 참가 및 EXPO 참관
9월8일 (월)	몬트리올 토론토	-	○몬트리올 → 토론토 이동 (6시간 소요)
9월9일 (화)	토론토	Ontario Gov. Ministry of Children and Youth Services 방문	○온타리오 주정부의 아동수당, 학자금 지원제도 등 공보육 지원 프로그램 조사 - 담당자 : Aryeh Gitterman (아동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총괄) ○토론토 출발 (23:50) (KE074편)
9월10일 (수)	토론토	-	-
9월11일 (목)	인천	-	○인천공항 도착(02:30)

IFA Senior Government Official's Meeting

1. 개요

- IFA 주관 제 9차 Global Conference on Ageing에 앞서 각 국의 "Ageing-in-place" 정책 사례에 대한 정부 관계자 회의 진행.
-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중국, 체코, 일본, 미국, 웨일즈, 영국, 등 약 20여개 국에서 정책 사례 발표.
-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고령화 현황,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 계획)에 대한 소개, 고령화정책 가운데 특히 회의의 주제인 "Ageing-in-place"에 부합하는 대표적 사례 소개.
 - 기존 정책으로서 주거정책, 교통정책, 여가문화시설 정책 소개
 - 신규 도입 정책으로서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소개

2.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본 인프라 정립에 치우쳐 "Ageing-in-place"에 적합한 정책적 사례가 부족함.
- 우리나라는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서구사회에 비해 특히 고령친화 산업 부문이 지나치게 '의치' '보철기' '휠체어' 등 의료적 보장구 중심으로 제한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고령친화 산업은 노인특화적 제품뿐만 아니라 외식산업, 문화컨텐츠, 의류산업, 레저산업, 주택디자인, 가구디자인 등 광범한 제품 및 서비스 영역을 포괄하는 것임.
 -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유독 젊은 세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고령 인구의 라이프스타일과 욕구를 고려한 실버산업 부문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점차 사회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갈 것임을 고려할 때, 그리고 노인인구의 경제력이 향상될 것임을 예측해 볼 때 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욕구를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 확대는 궁극적으로 노인의 구매력을 자극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발표원고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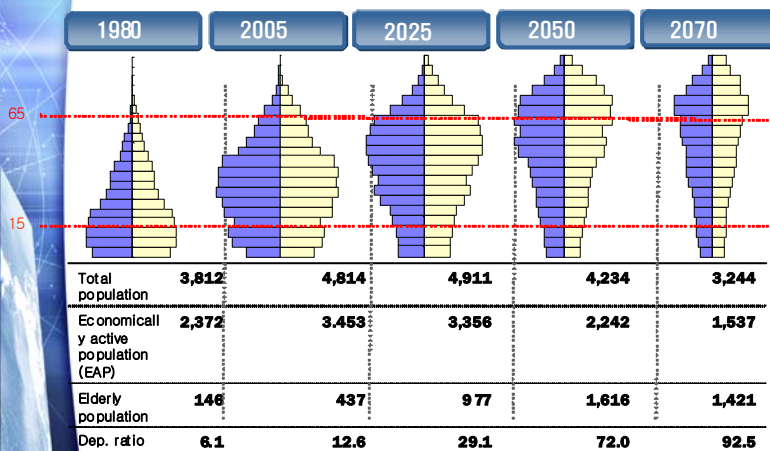


List of Contents

- ◆ 1. Aging trends and welfare needs in Korea
- ◆ 2. Mainstream Programs for Aging-in-Place
- ◆ 3. Pilot project for Aging-in-Place
- ◆ 4. Future Directions

Aging trends : Now and Future (1)

Unit: 10 thousand



- ❖ Total population will decrease after reaching 49.3 million in 2018

Aging trends : Now and Future (2)

- ❖ It will take only 18 years for Korea to become an aged society (more than 14% elderly population) from an aging society (more than 7% elderly population)

Country	Year			Years taken	
	Aging (7%)	Aged (14%)	Super-aged (20%)	Aging to aged (7%→14%)	Aged to super-aged (14%→20%)
Korea	2000	2018	2026	18	8
Japan	1970	1994	2006	24	12
France	1864	1979	2018	115	39
Germany	1932	1972	2009	40	37
Italy	1927	1988	2006	61	18
US	1942	2015	2036	73	21

Source : NSO, 'Population Projection', 2006.

Lives and welfare needs of the elderly

- ❖ Rapid increases in the elderly population, rapid increases in welfare needs

■ Increases in elderly-only households

- Elderly-only households: 51.2% (elderly living alone, one in four)

■ High rate of chronic illness; long-term care need rises

- Need for long-term care increases due to increasing cases of dementia and stroke
- 90.5% of elderly are chronically ill, 36.3% experienced impairment in daily activities

■ Insufficient economic preparation for old age; growing government responsibility

- 28.4% of the elderly have an income below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 An increasing share of the population find the government responsible for people's old-age lives - 20.5%(1994)→ 40.2%(2004)

■ Elderly want an active social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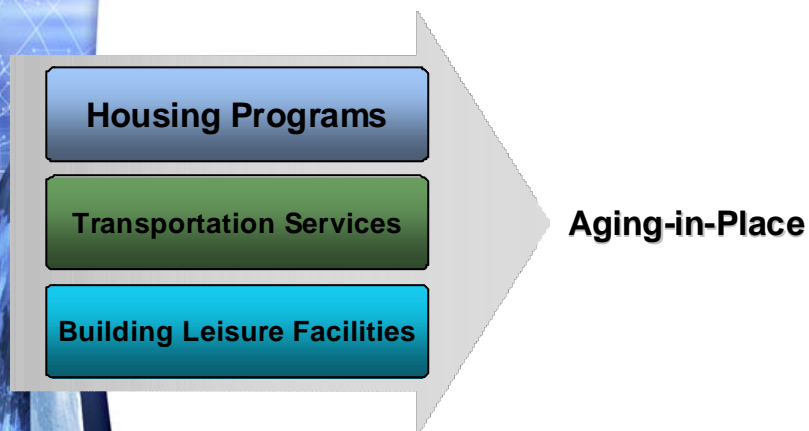
- Those wanting an active old-age life increases with increasing life expectancy and education levels
- % of the elderly with more than high school education 5.5%(1994) → 18.6%(2004)

Measures ta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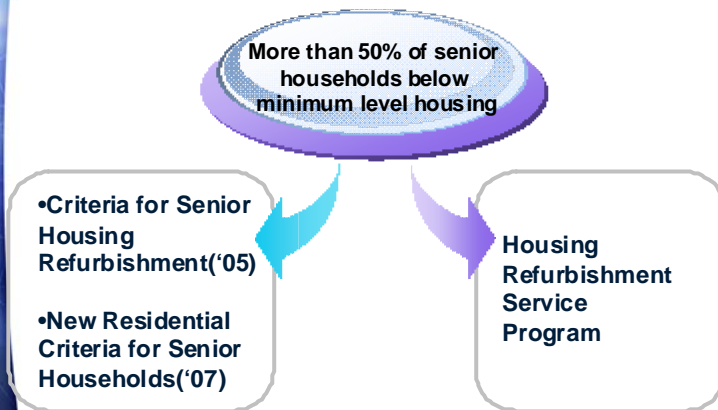
: initiation of the First Basic Plan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2006–2010)

- ❖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ct ;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05)
- ❖ Initiation of the First Basic Plan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2006–2010) in Aug. 2006 : the “*Seromazi Plan*”

Outline of Mainstream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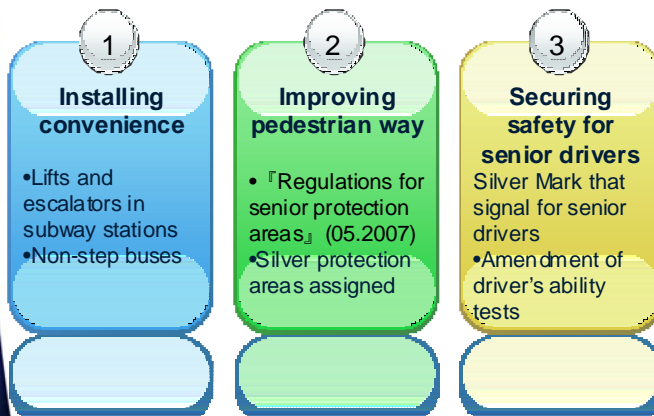


Housing Programs



Transportation Services

- ❖ 31.7% of Korean elderly have tumbled over barriers or humps on a pedestrian way, 33.5% of Korean elderly injured on public transportations
- ❖ 20% of older people have a driver's license, but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also increasing





Building Leisure Facilities for seniors

Vitalization of Community Senior Centers(*Kyungrodang*)

- ❖ Approximately 56,616 community senior centers in total
- ❖ Administration costs and utility expenses provided by the state or the municipal government
- ❖ Various activity programs developed and distributed

Establishment of Multi-purpose Senior Centers

- ❖ 188 Multi-purpose Senior Centers currently in operation within the country
- ❖ Support provided by the municipal government, thus causing big regional disparities

Pilot project for 『Building a senior-friendly community』

Background

: “*regional disparities becoming more of a significant issue*”

- ❖ The number of municipals with more than 20% of their population aged appeared to be 63 out of 234
- ❖ Aging policies and services provided sporadically and disregarding local characteristics

Current situation

- ❖ Announcement of 『Senior-friendly Zone』 program('06.8)
- ❖ Pilot cities appointed for the program('07.5), action plans developed('08.1)
 - 4 municipals with large number of elderly population(i.e Euisung, SoonChang, BooYeo, WonJoo) appointed as pilot cities



Future Directions

: Creating a senior-friendly community where age can be an opportunity

- ❖ Until now, policy initiative was focused more on strengthening fundamental basis for aging-in-place(ex. housing, transport, leisure, etc.)
- ❖ It is necessary to move to a more sustainable and community based policy for aging-in-place in the future.



Thank You !

9th Global Conference on Ageing : Shaping Tomorrow Today

1. 개요

- 9월 4일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각국의 고령화에 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 프로그램 진행.
- 개회식의 기조발표는 "The New Paradigm : Aging and Design"을 주제로 Dr. Chris Luebke(영국)와 Ms. Valerie Fletcher(미국)이 발표.
- 발표 주제는 장기요양, 고령친화적 주거 디자인, 고령친화적 지역 사회, 세대간 갈등해소, 고령자 노동, UN 고령화 아젠다, 노인학대 등 매우 포괄적.

온타리오 주정부 Ministry of Children and Youth Services 방문

1. 개요

- 온타리오 주정부 아동청소년 서비스부(Ministry of Children and Youth Services) 방문.
- 전략기획과장(Strategic Planning Branch) Cynthia Iskiw, 프로그램 컨설턴트 Mercedes Mompel, 정책분석위원 Charene Gillies를 비롯해 10여명의 부처 소속 전문가 및 실무자 참석.
- Cynthia Iskiw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아동청소년 서비스 정책의 주요 골자 발표. 한국정부 측의 질의 및 관련자의 답변으로 진행.

2. 온타리오 주정부 아동청소년서비스국 발제 내용

- 총괄 목표 : 아동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 제공.
- 세부목표 :
 - 아동 발달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개입
 - 학업 성취의 기반이 되는 유년기 발달 지원 강화
 - 원주민 자녀, 요보호 아동 및 청소년, 비해 청소년, 빈곤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보다 세심한 지원과 서비스 제공.
 - 전체적으로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
- 서비스 제공의 핵심 원칙 :
 - 아동 및 가족 중심적
 - 지역사회 기반
 - 역량 강화 초점
 - 통합적, 협력적
 - 발달단계에 적합하고 개별화된 서비스
 - 사회통합적
 - 실증에 기반
 - 산출중심적
 - 보편성
- 관련 법규
 -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
 - Day Nurseries Act
 - Health Protection and Promotion Act
 - Intercountry Adoption Act
 -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Act
 - Ministry of Correctional Services Act
 - Youth Criminal Justice Act

- Rescuing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ct
- 조기학습 및 아동 발달 :
 - Best Start 프로그램
 - Ontario Early Years Centres(부모 및 양육자에게 유아기 발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관. 지역사회에 설치)
 - 발달지체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정부 지원(청각, 시력, 언어, 기타 발달)
 - 현대산업사회에서 증가하는 병폐 중에 하나인 자폐아동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 위탁 서비스
 - Children's Treatment Centres
 - 재택보호 서비스
-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 A Shared Responsibility : Ontario's Policy Framework for Child and Youth Mental Health 프로그램
 - 260여 개의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 Directly Operated child and Youth Mental Health Centres(부처 직영 기관)
 - Ontario Child and Youth Telepsychiatry Program
 - Centre of Excellence for Child and Youth Mental Health
- 원주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체계 강화
 - Aboriginal Healthy Babies Healthy Children
 - Aboriginal Fetal Alcohol Syndrome Disorder and Child Nutrition Program
- 아동보호 서비스
 - 학대 및 방임 아동에 대한 보호는 법적 기구인 Children's Aid

Societies(CASs)가 수행.

- CAS는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의 법적 구속을 받는 기구이며 아동청소년서비스부의 위탁 기구.
- 아동청소년서비스부는 CAS에 대해 재정지원을 비롯해 정책 수립 및 규정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

○ 온타리오 아동수당(Ontario Child Benefit, OCB)

- 2007년 3월 온타리오 주정부에 의해 도입.
- 18세 이하의 아동을 둔 저소득 가정에 지원.
- 2008년 7월부터 월단위 급여 체계로 변환.
- 460,000 가구가 급여 혜택, 아동 한 명당 연간 600\$ 급여.
- 급여수준은 점차 상향조정돼 2011년까지 아동 한 명당 연간 1,100\$로 증가시키고, 급여 대상자 범위도 확대시켜 600,000 가구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

○ 불임 및 입양 사무국 (Infertility and Adoption Secretariat)

- Expert Panel on Infertility and Adoption 구성, 그 활동 지원
- 12명의 사무국 위원 임명.
- 의료 및 입양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 불임을 경험한 부모 및 개인들로 구성.
- Panel은 아동청소년서비스부 장관에게 불임 스크리닝, 불임치료 및 입양 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수행.

○ 기타 인터넷 정보원 :

- www.gov.on.ca/children
- www.childrensinfo.ca
- www.youthconnect.ca

3.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저출산의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시각이 우리나라와 매우 상이함.
 - 저출산 문제를 그 자체로 조망하지 않으며, 아동과 청소년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조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고자 함.
 - 가령, 동일한 정책(ex. 아동수당정책)도 매우 다른 시각에서 접근됨.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으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수당정책을 도입했다면, 불과 작년에 아동수당을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 아동수당을 “아동발달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이러한 차이는 정책에 대한 기대수준 및 평가의 차이로 연결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 정책의 평가 기준이 출산율에 의해 가늠되고 이에 따라 정책의 존폐가 결정된다면, 캐나다의 경우 단기적인 출산율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사회발전’의 시각에서 아동수당을 조망하고 있음.